

교회소식

감사 : 교회 창립 14주년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속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 드립니다.

축하 : 임직자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건강하여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섬기기 바라며 모든 성도들은 임직자들이 충만하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환영 : 창립 감사및 임직예배에 참석하고자 외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본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 :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속에 15명의 선교팀이 바누아투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추후 선교 보고의 시간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련회 : 전교인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13.12. 31(화) - 2014.1.2(목) • 회비: 10불(1인)
-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예약 완료, 교회에서 1시간 거리)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맞이를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공동체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회 :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YFC수련회가 오는 16일-19일까지 한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김 : 창립예배와 임직식을 위해 음식으로, 여러부분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교회 창립 14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2013년 7월 14일 오후 2시 본당

장로장립: 고성일, 박덕철, 박병민
집사안수: 경덕현, 김철재, 최광암
권사안수: 김봉희, 박혜숙, 정혜숙



교회는 축복입니다.

경덕현 집사

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가 창립14주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의 시간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를 출석한지 10년을 훌쩍 넘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추해보면 갈보리 교회라는 든든한 바지랑대가 버팀목이 되었기에 고단했고 암담했던 이민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보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의 기억속에는 여전히 코 훌리게 남아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느덧 대학생들이 되고, 성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이제는 자녀를 가진 듬직한 부모들이 되는 모습에 세월의 흐름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줄곧 한 교회만을 출석하기에 볼수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4년동안, 외롭고 지친 하루 일과를 위로 해 주던 곳이 갈보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던 곳도 갈보리 교회였습니다. 사업상 어려움과 배신감에 주말 저녁, 본당 문을 잠그고 홀로 앉아 서럽게 울던 곳도 갈보리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던 추억도 온전히 갈보리 교회였습니다.

지난 세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런저런 사정에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는 변화되는 모습에 섭섭하고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들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거리에서 만나는 옛 교우들조차도 사랑스럽고 반갑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다니는 열정보다,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확신을 실천하는 우리들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한한 사랑의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열치기 교인입니다. 아직도 교만을 교만인지도 모르고 세상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위선쟁이 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 하시며, 저의 연약함을 마다 않고 세세히 덮어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갈보리교회 14주년은 그래서 저와 저의 가정에 소중한입니다. 누구도 그렇듯이, 혈혈단신 용기 하나로 이 땅에 자리잡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 한 가문의 장손으로, 장남으로 책임감의 무게를 먼 이곳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정든 친구들의 그리움도 역시 뿌리치기 쉽지 않았습니.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바다를 건넜습니. 그러나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희 가정에 차고

기도	정덕수 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12:1 집례자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 원 목사
찬송 455장 (1,2절) 다함께
서약 당회장

장로에게 / 집사에게 / 권사에게 / 교우에게

장로 안수기도 안수위원, 당회원 당회장
악수례 위원
집사 안수기도 안수위원, 당회원 신현성 목사
악수례 위원
권사 안수기도 안수위원, 당회원 김종두 목사
악수례 위원
선포 당회장
축가 박형길
축사와 권면 김용환 목사
광고 이태한 목사
찬송 455장 (3,4절) 다함께
축도 이 원 목사

1부 감사예배

예배로 부름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 찬송 35장	다함께
* 성서교독 79. 요한복음 15장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14년의 발자취	말은이
찬송 208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2:42 ~ 47	인도자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하나님의 교회	이태한 목사
축하영상	김성국 목사
축하위십	단기선교팀
찬송 21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2부 임직예배

집례: 당회장

예식사	집례자
찬송 435장	다함께

넘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사업체를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더 다가가게 해 주셨습니다. 귀한 아내와 아들, 딸을 통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갈보리교회에도 14년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 위에 있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교만과 유익함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4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갈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진실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되는 갈보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거듭나는 갈보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갈보리교회 온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창립 14주년에 부쳐

이태한 목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가슴 뭉클하게 했던 항일 시인 이육사 선생의 “광야” 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14년 전 오늘, 어찌보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까마득한 날, 어찌보면 이민문이 처음 열리던 때, 베드로의 통곡을 가져온 닭 울음 소리조차 희미해져 가는 오클랜드에 하나님은 복음의 큰 강물이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으니 이름하여 갈보리 교회입니다.

14년의 세월 앞에,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56번의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고, 그와 함께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힌 인생들의 광야에 놓여진 교회의 14살 생일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14살은 청소년기에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춘기 소년과 같습니다. 14살은,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명제가 가득히 놓여 있지만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중시하는 세상 풍조 앞에 그 명제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심리적 방황을 겪고 청소년기입니다. 14살은, 돌출 행동이 잦고 이유 없는 반항으로 고집을 부리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모의 손길,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의 흐름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민자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서러움을 달래주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교회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섬겨야 하며 보듬어야 하고 그때 교회다운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14살 청소년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14살 짜리가 부모와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세우며 공부해야 할 자신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방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버지 방에서 공부를 해도 될까요?”
매일 물어 보는 것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4살이 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간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 받았다는 생명의 복음을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계획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수년전부터 기도로 마음으로 뜻을 한곳에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 뜻을 함께 하는데 조금만 더 기도와 관심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눈이 내리는 겨울처럼 춥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로새서1:24)” 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 십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의 당대가 끝나고 손자 손녀들이 우리 인생의 의자에 앉았을 때 광야 같은 세상에 우뚝 솟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분께 찬양을 목놓아 부르게 하기를 창립 14주년 날에 소원해봅니다.

갈보리 교회 14살에 즈음하여

고성일 장로

요즘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1년이면 옛날의 10년 변한 것보다 더 급속하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 왔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드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느덧 갈보리 교회는 14살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14년이라는 세월의 싹풍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99년 7월 14일, 이역만리 뉴질랜드 땅에 한알의 밀알의 심정으로 갈보리 제단을 이땅에 심은 신 전임 목사님이 총성으로 섬기다가 10년 사역후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이어 이태한 목사님이 우리 갈보리 제단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광을 돌리고자 열정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갈보리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가족들은 어딜가나,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온맘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인생의 역경이나, 신앙의 난관 속에서도 주님의 도를 떠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헛된 풍조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알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라” 고 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맡기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전하며 믿음의 생활을 정진 해나가는 갈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창립 14주년을 감사드리며 다짐해봅니다.